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K-MASK!!

1. 북청사자놀이

북청사자놀이_사자	북청사자놀이_꺽쇠	북청사자놀이_양반
		
		

1.북청사자놀이

: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정월 대보름에 사자탈을 쓰고 놀던 민속놀이로, 사자에게는 사악한 것을 물리칠 힘이 있다고 믿어 잡귀를 쫓고 마을의 평안을 비는 행사로 널리 행해졌다.(1967.03.31. 지정.)

- 길잡이 : (길잡이가 동네사람들을 헤치며 들어와서 가장자리로 빙빙돈다)
- 꼭 쇠 : (꼭쇠가 양반을 모시고 갈-지자 걸음을 하며 들어온다)
- 양 반 : (양반이 부채를 흔들고 거드름을 피우며)-꼭쇠야-
- 꼭 쇠 : 예-
- 양 반 : 양반을 정하게 모시려무나-어째서 뼈뚫-뼈뚫-갈-지자 걸음을 하는고?
- 꼭 쇠 : 예-이렇게 모시면 되겠음메?(꼭쇠가 등으로 밀쳐서 양반을 넘어뜨린다)
- 양 반 : 이놈-버릇없는 놈 같으니-어서 부축하지 못하겠느냐?
- 꼭 쇠 : 미안함-메 어서 일어섬-써(꼭쇠가 양반을 부축해서 일어세운 다음 다시 걸어간다)
- 양 반 : 이놈 봐라 -여전히 갈-지자 걸음으로구나- 네놈 천성이 그런가 부구나-
- 꼭 쇠 : 이만-하면, 됐지-월-그럼메-
- 양 반 : 이놈 무슨 군 소리냐-(꼭쇠가 여전히 갈-지자 걸음을 하며 꺾꺾 웃어댄다)
- 꼭 쇠 : (양반을 끌고 가던 멜끈을 놓고, 동네 사람들을 둘러보며)저-쪽, 아바이-이쪽, 아망이-저-기 서 있는, 성님네들-이런, 쉼-미르 본 일이 있음메?(양반의 수영을 -만지작 거리며) 실-루, 좃슴메-주인-양반-내 쉼-미 하구 바꿈세-
- 양 반 : 이놈-철딱상이 없는 소릴 작-작-해라-
- 꼭 쇠 : 이놈-저놈-하지맴-써-사람 팔자 알 수 있음메? 주인-양반이라구-꼭쇠 신세-되지 말란 법 있음메?
- 양 반 : 이놈-허튼 소리만 할 작정이냐?
- 꼭 쇠 : 예-구, 미안함-메-그럼, 나두-서울말씨 써 보겠음메-(다시 걸어간다)



2. 봉산탈춤

봉산탈춤_미알할미	봉산탈춤_남강노인	봉산탈춤_용산삼개 덜머리집
		
		

2.봉산탈춤

: 봉산탈춤은 약 200년전부터 매년 단오와 하지날 밤에 행해졌다. 놀이는 4상좌춤·8목중춤·사당춤·노장춤·사자춤·양반춤·미알춤의 7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산탈춤은 황해도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온 해서탈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탈춤으로, 다른 탈춤에 비해 춤사위가 활발하며 경쾌하게 휘뿌리는 장삼 소매와 한삼의 움직임이 화려하게 펼쳐진다.(1967.06.17. 지정.)

-영 감: (시나위청으로 노래한다.)

절 절 절시구 저저리 절절 절시구 열시구 절시구 지화자 줄네 절 절절 절시구. 우리 할맘을 찾으려고 일원산 이강경 삼부여 사법성 강산천리를 다 다녀도 우리 할맘을 못찾겠네. 우리 할맘 만나면은 코도 대고 입도 대고 연적 같은 젓을 쥐고 신짱 같은 혀를 물고 건드러지게나 놀겠구만 우리 할맘은 어디가고 날 찾을 줄을 왜 몰라요. 할머_____ 엄! (퇴장하여 한쪽으로 가면 미알이 노래하며 다시 나온다.)

-미 알: 거 누가 날 찾나? 거 누구라 날 찾아? 날 찾을 이가 없건만 거 누가 날 찾나? 술 잘먹는 이태백이 술을 먹자고 날 찾나? 춤 잘 추는 학두루미가 춤을 추자고 날 찾나? 수양산 백이숙제 재미 하자고 날 찾나? 날 찾을 이가 없건만 거 누가 날 찾아?

-영 감: (굿거리 장단에 춤을 추면서 다음과 같이 부르며 미알 쪽으로 나온다.) 할멈 찾을 이 누가 있나? 할멈 찾을 이 누가 있어? 여보소 할멈! 아, 날세 나야. (미알과 영감은 동시에 부채를 펴서 본다.)

-미 알: (영감에게로 오면서) 아이구, 이거 우리 영감 아니요?

-영 감: (할멈을 껴안으며) 이이고, 이거 우리 할맘 아닌가?

-미 알: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이제야 우리 영감을 만났구려.

-영 감: 여보 할멈, 오랜간만에 천우신조로 이렇게 만나고 보니 참 반갑소. 그런데 할맘은 그 동안 어디를 그렇게 찾아 다녔읍나?

-미 알: 아이구, 영감 말도 많소. 영감 찾으라고 산으로 천리 수로로 천리 육로로 천리 삼천리 방방곡곡을 무른 메주 밧듯 할 적에 면면 촌촌이 참나무 겹겹이 가랑잎 새새 바위 틈틈이 모래 째뼌이를 다 찾아 댕겨도 영감 비슷한 영감 없더니만 오늘 이렇게 영감을 만나니 참 반갑소.

-영 감: 여보 할멈! 우리 이렇게 오랜간만에 만났으니 둘이 얼싸안고 춤이나 한바탕 추어봅세.

-미 알: 아, 그럼시다.

-영 감: (미알과 함께 얼싸 안으며 춤춘다.)

반갑구나! 얼싸! (한참 춤을 추고 있을 때 용산삼개 덜머리집이 춤을 추면서 등장한다. 영감은 그녀를 보고 그 쪽으로 가서 함께 어우러져서 춤을 추고 있을 때 정신 없이 혼자서 춤을 추고 있던 미알이 그 모양을 보고 그 쪽으로 쫓아가서 씩씩거리자 영감이 어색해져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나온다.) 여보 할멈! 거 오랜간만에 만났으니 아이들 말이나 물어 봅시다. 처음난 문열어 그놈은 어떻게 자랐나?

-미 알: 아이구, 말도 많소. 하도 빈곤 하기에 산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호랑이에게 물려 갔다오. (운다.)

-영 감: 뭐가 어찌고 어찌? 오 인제는 자식도 다 죽이고 아무 것도 볼 것이 없으니 너하고 하고 영영 헤어지고 말자.

-미 알: 여보 영감, 오랜간만에 만나서 어찌 그런 야속한 말을 합나?

-영 감: 듣기 싫다. 자식도 없는데 너와 살 재미가 조금도 없지 않느냐?

-미 알: 이놈의 영감! 헤어질라면 헤어집세(한편에 서 있는 덜머리집을 가리키며) 저렇게 고운년을 얻어 두었으니까 나를 미워하는 거지.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이별하면 같이 이별하지. 아, 이년아! 너는 나하고 무슨 원수가 있길래 이놈의 영감을 이렇게 환장을 시켰느냐? 네년 죽이고 나 죽으면 그만이다. (달려들어 덜머리를 때린다.)

-덜머리집: (달려들어 같이 때리고 싸운다.)

-영 감: (돌을 떼어 놓으며) 너 이년 용산삼개 덜머리집이 무슨 죄가 있다고 때리느냐? 야, 이 더러운 년아 구린내 난다. 썩 물러 가거라.

-미 알: 오냐! 좋다 이놈! 이제는 나도 너 같은 농하고 살기가 싫다. 너하고 나하고 같이 번 세간이니 세간이나 똑같이 노나 가지고 헤어지자. 어서 노나내라.

-영 감: 오냐, 노나주마 노나줘. 물이 총총 수답이며 사래찬 밭은 나 가지고, 제비 같은 여종이며 날매 같은 남종일랑 새끼 꺼서 나 가지고, 황소 양소 새끼꺼서 나 가지고, 곡식은 하나도 안되는 저 노리마당 모래밭대기는 너 가지고, 숫쥐 암쥐 새앙쥐까지 너 가지고, 네 년의 새끼까지 너 다 가져라. 그러면 똑 굶어 죽기 알맞을 것이다.

-미 알: 이복소, 영감! 어찌 그리 야속한 말을 합나. 조금만 더 갈라 줘소.

-영 감: 야, 이년 욕심 봐라. 조금만 더 갈라 줘소? 이년 이제보니 네가 이놈의 세간살이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이놈의 세간살이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부수고 말갸다. 광광 짓모아라!

-미 알: (두손을 들어 만류하며) 이습소 영감! 나의 것은 다 짓모아도 사당일랑 짓모지 맙소. 사당 동티나면 어찌하오.

-영 감: 흥! 사당동티? 날라면 나라지! 광광 짓모아라! (짓모는 춤을 신나게 추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는 시늉을 한다.)

-미 알: 잘 되었다. 이놈의 영감. 사당 짓모지 말라고 해도 내 말 안듣고 짓모더니 사당동티로 너 죽었구나. 동네방네 키 크고 코 큰 총각 있거들랑 우리 영감 내다 묻고 나하고 돌이 살아봅세. (부채로 영감의 눈을 찌로며) 아니 이놈의 영감 눈깔은 벌써 까마귀가 다 파먹었구나.

-영 감: (큰소리로) 아야야!

-미 알: 아니 죽은 놈의 영감이 말을 허나?

-영 감: (벌떡 일어나며) 오오냐, 가지 죽어서 말을 한다. 너 이년 무엇이 어찌고 어째? 동네방네 키 크고 코 큰 총각 우리 영감 내다 묻고 나하고 살아보세? (미알을 사정없이 때린다.)

-미 알: 아이고, 이놈의 영감. 나 싫다고 하다니 왜 날 때려? (미알이 달려들어 영감과 싸운다.)

-영 감: 야, 이년 무슨 잔말이냐? (미알을 발로 차고 마구 때린다.)

-미 알: (악을 쓰며 발악 하다가 쓰러져 죽는다.)

-영 감: (덜머리와 좋아서 수근덕 거리다가 미알을 보고)

야, 이년 정말로 죽은 것 아니야? 거 원 성질도 급하기도 해라. 꼭 가랑잎에 불붙기로구나. (미알을 들여다 보며 죽은 것을 확인 하고는) 아이고, 아이고, 정말로 죽었구나. 아이고, 아이고. (노래조로) 신농씨 상백초하야 세상에는 갖은 영약도 많은데 이렇게 약 한첩 못 써보고 갑자기 죽는단 말이 웬말이란 말이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덜머리가 다가와서 한참 지켜보다가 영감의 등을 때린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돌은 꺼안고 춤을 추면서 퇴장한다.)

- 남강노인: (흰수염에 갓을 쓰고 건담배대를 입에 물고 한 손은 담뱃대를 잡고 또 한 손은 뒷짐을 하고 천천히 들어온다.) 에헴! 에헤__엠! 아아니, 이것들이 무슨 싹을 하는고? 오래간만에 만나더니 사랑 싹인가? 동네가 요란 하구나. (미알 있는 데로 가서 한참 보고 죽은 것을 확인 하고는) 아이고, 이것이 웬일이냐? 지독하게도 죽었구나. 동네 사람들 이것 보소. 미알할멈이 죽었구려. 아이고 불쌍하고 가련 하여라. 영감을 잃고 가진 고생을 하더니 그만 죽고 말았구나. 이것을 어찌 하노? 옳지! 기왕 죽었으니 죽은 혼이라도 좋은 곳 극락세계 가라고 만신이나 불러 굿이나 하여 줄 수 밖에 없다. 만신 부르러 갑네!

(남강노인이 무당을 부르러 나가면 목중 돌이 들어와서 미알할멈을 들고 퇴장한다. 이어서 굿장단에 맞추어 남강노인이 젓상을 받쳐 들고 앞서서 들어 오고, 그 뒤에 무당이 한 손에 부채를 들고 또 한 손에는 방울을 들고 들어온다. 남강노인이 탈판의 중앙쯤으로 와서 젓상을 내려 놓으면 무당은 두 손을 들어 부채와 방울을 흔들면서 사방을 향하여 배례 하면서 굿을 시작한다. 남강노인은 계속해서 손을 비비기도 하고 절을 하면서 공수를 받고 서있다가 무당이 공수를 하거나 소리를 할 때 " 옳소, 옳소! "를 하면서 빌고 있다.)

3.강령탈춤

강령탈춤_만양반	강령탈춤_차양반	강령탈춤_셋재양반(재물대감)
		
		

강령탈춤_도령



3.강령탈춤

: 황해도탈춤은 황해도의 평산과 기린의 남북을 중심으로 북쪽의 봉산탈춤형과 남쪽의 해주탈춤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강령탈춤은 해주탈춤형으로 분류된다. 강령탈춤은 매년 단오에 행해지는데 사자춤·말뚝이춤·목중춤·상좌춤·양반과 말뚝이춤·노승과 취발이춤·영감과 할미광대춤의 7개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1970.07.22.)

제7과장

진한양반: (용수관-실은 개가죽관-을 쓰고 취배 장삼을 입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줄부채를 들었다.)

마한양반: (총관을 쓰고 취배장삼을 입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줄부채를 들었다.)

변한양반: (고깔을 쓰고 흰 장삼을 입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줄부채를 들었다.)

도련님: (진한양반의 아들, 복건을 쓰고 두루지(周衣)에 쾌자를 입고, 손에 줄부채를 들었다.)

말뚝이 I·II: (패랭이를 쓰고 검은 하인배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채찍을 손에 들고 허리에 방울을 찼다.) (이상 6명 일제 등장하여 진한양반과 말뚝이 I, 마한양반과 말뚝이 II, 변한양반과 도련님, 이렇게 각각 일대(一對)가 되어,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서 한참 동안 춤을 춘다.)

진한: (좀 앞으로 나와서 마한을 보고) 예끼 쌍놈! 나넌 그러려니와 썩하면 나가고 칭해도 나가고 허니, 그런 쌍놈이 어디 있느냐?

마한: (좀 앞으로 나와서 진한을 보고) 네가 쌍놈이지 내가 쌍놈이냐! 너 허넌 일이 곳곳이 쌍놈이다. 네 머리에 쓴 것만 봐도 쌍놈이 아니냐.

진한: 내 머리에 쓴 것을 네 뭤로 아너냐?

마한: 여보게 게 양이...

진한: 양이라니?

마한: 양을 몰라?

진한: 양자강두양류춘(揚子江頭楊柳春)에 양화수색도강인(楊花愁殺渡江人)이란 양 말이나?

마한: 그 양도 아니다.

진한: 남원 옥중에 갇힌 춘향이란 양 말이나?

마한: 그 양도 아니다.

진한: 흥문연 잔체시에 검무 허던 항량(項梁)이란 말이나?

마한: 그 양도 아니다.

진한: 박랑사중(博浪沙中) 모진 철퇴 창해역사(滄海力士) 다시 주어 오중부거(誤中副車)하던 장량(張良) 말이나?

마한: 그 양도 아니다.

진한: 그럼 무슨 양이란 말이나?

마한: 네 머리에 쓴 게 개잘양이란 말이다.

진한: 이것이 개잘양으로 생각하느냐? 개잘양이 아니다. 용수관이다. 개잘양이라 해도 가이도 어른(五倫)이 있다.

마한: 그래 가이도 어른이 있다하니 어디 들어 보자.

진한: 들어 보라. 지주불폐(知主不吠)하니 군신유의(君臣有義)요, 모색상사(毛色相似)하니 부자유친(父子有親)이요, 일폐중폐(一吠衆吠)하니 봉우유신(朋友有信)이요, 잉후원부(孕後遠夫)하니 부부유별(夫婦有別)이요, 소부적대(小不敵大)하니 장유유서(長幼有序)라. 이만하면 가인들 어른이 상당치 않느냐?

마한: 너넨 가이 어른얼 가지고 다니느냐? 그러면 내 양반의 근원을 들어 보겠느냐?

진한: 그러면 말을 해라.

마한: (노래조로) 양반이란 것이 출어세상(出於世上) 하야 교동 법가 자제 되어 함관수(含盥水)허고, 노래자(老萊子)의 옷을 입고 삼척동자 부러 혈까? 맹종(孟宗)언 죽순 캐고, 왕상(王祥)언 잉어 낚고, 자로(子路)넨 부미(負米) 허고, 증자(曾子)넨 양기지(養耆志) 라 원득삼산불로초(願得三山不老草) 배헌고당백발친(拜獻高堂白髮親) 평생갈력(平生竭力) 다헌 연후에, 사방에 널리 도라 세상물정 짐작 후 청라연월(靑蘿煙月) 대사립에 백운심처(白雲深處) 들어 가니, 요요운악(遙遙雲岳) 가이 짓넨다. 아미산월반륜추(峨嵋山月半輪秋)와 적벽강상무한경(赤壁江上無限景)얼 어찌 다 비혈소냐.

주나라 강태공언 위수에 고기 낚고, 한승상 제갈량언 남양에 밭얼 갈며 양보음(梁甫吟)얼 읊어 있고, 도당씨(陶唐氏) 시절에 영수(潁水)에 귀럴 시쳐 문답허던 맑은 덕(德) 소부(巢父) 허유(許由) 이 아니냐.

문장종서후(文章從書後) 광산 맞어다 월중단계(月中丹桂) 꺾어 들고 어주(御酒)로 상락(相樂)허니 삼공(三公)언 육경(六卿)이요 옥당(玉堂)언 한림(翰林) 이라 무해(武藝)로 이룬진데 선전무관장신(宣傳武官將臣) 되어 말(斗) 만헌 대장인(大將印)얼 요하(腰下)에 비껴 차고, 대장단(大將壇)에 높이 앉아 삼천병마(三千兵馬) 지휘하여 동벌서토(東伐西討) 하여 천자지은(天子之恩)얼 만분지일이나 갚아야 가위 양반이지……

진한: 님 그까짓 근본언 옛날 썩어진 근본이다. 내 양반의 근본얼 들어 보라. (노래조로)

신라시조 혁거세 통일천하 후 공명이 부운(浮雲)이라. 죽장짚고 망혜 신고 대원강산(大願江山) 하여 보자.

우의로 천상선경(天上仙境) 앙망불급(仰望不及) 불가내(不可奈)라. 인간에 만고 경치 차례로 찾으리라 봉황대 찾아가니, 봉황언 간 곳 없고 강물결만 흘러 있다.

황학루럴 올라 가니 학선(鶴仙)언 어디 가고 백운(白雲)만 유유(悠悠) 로다.

일락장사 추색원(日落長沙 秋色遠) 가태부(賈太傅)의 서름이라.

마한: (장삼 소매로 진한의 등을 툇 치며) 그게 양반의 근본이람?

변한: 진한 양반 전라도 광대 비슷허고, 마한 양반의 근본언 그도 역시 옛날 썩어진 양반이다. 내 양반의 새 근본언, 신라시조 통일 후에 군자년 불망기본(不忘其本)으로 꺾알 씨고 다니고, 양반이란 것이 소학 중학 대학얼 졸업헌 후에, 들며던 내각의 수반이요 나가면 정당의 총재로서 진역우(進亦憂) 퇴역우(退亦憂) 허던 것이 가위 양반이라고 일컬을 것이 아니냐? 근본이 이뿐이 아니다. (노래조로)

일자 한 장얼 들고 보라, 일월성성(日月星星) 왜성성 밤중 셋별이 완연허구나.

이자 한 장을 들고 보라, 이팔청춘 소년덜아 늙으니 보고서 웃지 말게.

석삼자 들고 봐, 삼만 관속이 느러서서 권매성(勸馬聲)으로 세월이라.

낙사자럴 들고 보소, 사신행차 바쁜 길에 점심참이 더디구나.

오자 한 장 들고 보라, 오관참장(五關斬將) 관운장(關雲長)은 적토말을 비껴 타고 흔들거리고 내려온다.

육자 한 장 들고 보라, 육관대사 성진이 석교상 좁은 길에 팔선녀를 희롱하고.

칠자를 들고 보소, 대한칠년(大旱七年) 왕가물에 빗발 조차 더디구나.

팔자를 들고 보소, 팔년풍진(八年風塵) 초패왕 어느 패왕이 아니더냐.

구자를 들고 보소, 구름에 종종 늙은 중 백팔염주 목에 걸고 흐닐거리며 내려온다.

장자 한 장 들고 보소, 이 장 저 장얼 다 버리고 강령장이 졸다기로 불원천리(不遠千里) 허고 왔는데 동정허년 이 없구나. (하며 우스꽝스런 짓을 한다.)

진한: 양반타령 험다더니 우리 집안 망신시키년구나.

변한: 그까짓 망신 또 있다. 조선 곳 만세바지다. (독경조로) 사바세계(娑婆世界) 남섬부주(南瞻部洲) 해동조선 제일국에 경기도년 이십육관 황해도년 이십삼관 해주 벽성언 대무관(大武官)이고 강령 은율언 소무관(小武官)이고, 수양산에 대사냥과 찬감산에 기사냥과 마근담의 삼토장군 후토부인(後土夫人)얼 모시라고, 선아당에 장군 맞이 동경주에 군빈사신 아가당에 울두아기 낙태부인얼 모시고, 택일당(擇日堂)에 택일선관(擇日仙官) 육관정에 여러 장군 용당포(龍塘浦)에 금성장군(錦城將軍) 대수업으로 어비장군 가치산에 병마장군(兵馬將軍) 넘바위로 서린장군 가막개로 송재장군 연평하구년 임장군 이요, 어화도에 백마장군 등산이 연화당에 수노하고 가리 끝에 사신당(使臣堂)으로 모이시어, 너도 승천 나도 승천 대성곡(凱旋曲)얼 올려 보자…… (하며 한참 무당이 도무(跳舞)하듯이 상하로 뛰다가 갑자기 넘어진다.)

진한·마한: (둘이 같이 변한한테 가서 붙들어 일으킨다.)

변한: (벌떡 일어나서 직립부동(直立不動)한다.)

진한·마한: (자꾸 빌면서) 잘못된 것얼 눌러 감당하시요……

변한: (정신을 차린다.)

진한: 자아 우리가 피차간에 근본 말만 허다가서는 시간얼 보내년 것이니 달리 말얼 허자. 말얼 다들 것이 아니라, 작년 오월 동당시(同當時)에 종놈 말뚝이 두놈얼 잃었년대, 그놈이 풍악얼 좋아하년 놈이라 이런 좋은 풍류에 왔음즉 허니 한 번 불러 보면 어떠헌가?

마한: 예끼 상놈! 니가 부르지 누구더러 부르라 말라 하너냐.

변한: 자아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일제히 다 같이 불러 보자.

진한·마한·변한: (3인이 다 같이 소리를 합해서) 이놈 말뚜우우가아 어어이 어어이……

말뚝이 I: (후다닥 뛰어 나오며) 으흐흐 허허 어얼수 예예…… 작년 오월 동당시에 나갔던 종놈 말뚝이 문안 드리오. (하고는 후다닥 뛰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진한: 자아 갑자기 이것이 웬일이냐? 뒷인지 울긋불긋한 것이 후다닥 뛰어 들어왔다 없어지니 아마 벼락얼 쳤나, 내 모가지 있나 봐라.

마한: 자아 그것 자세히 알 수 없이니, 우리 다시 한 번 불러 보자.

마한·변한·진한: (3인이 소리를 같이 하여) 이놈 말뚜우우가아 어어이 어어이.

말뚝이 II: (후다닥 뛰어 나오며) 얼수어어. 양반에 집안에 어른 나 하나이 없이니까니, 말뚝이럴 부르거나 꼰두기럴 부르거나 근본 있고 세분 있고 머리 다래 곡절 있게 부르던 것이 아니라, 이놈덜이 궁상시리 으흐흐…… 양반 부르던 대로 불러라. (노래조로) 똑아 똑아 말뚝아.

진한: (말뚝이 II 앞으로 나가서 장단에 맞추어서, 둘이 깨끼리 춤을 대무(對舞)한다.)

마한: (쫓아 나가서 장삼 소매로 진한의 등을 치며) 두우-

진한: (춤을 멈추고) 두우라니?

마한: 그만두란 말일세.

진한: 그놈이 소슴(所習)이 고약한즉스는 다시 한 번 불러 자세히 물어 보세

진한·마한·변한: (3인이 소리를 같이 하여) 이놈 말뚜우우가아……

말뚝이 I 또는 II: (앞으로 나오면서) 어수어어어

진한: 네가 작년 오월 동당시에 나갔던 종놈 말뚝이가 분명허냐?

말뚝이: 어허 영락없시니다아-

진한: 그러면 네게 분부하였던 일이 없더냐?

말뚝이: 어허 영락 없소.

진한: 삼간(三間) 마구에 드러가서 청노새 덜미럴 집어내어 아래 우이로 솔질얼 살살 하여 말안장 달안장 층층 다래 구안장, 은입등좌 호피도듬 전후좌우 걸어 짚어 놓고, 대가리 함박 상모끼침 일치 채상모(彩象毛) 라. 성천(成川) 가 담배 무역해서 박천(博川)도 가 꿀물에 축축이 추겨서 은설함(銀舌奩)에 가득히 넣고, 은목 감아 자죽 설대 김해간죽 부산죽 전대에 두르르 말아 말궁 뒤에 딱 부치고, 우산 들고 필연(筆硯) 들고 남문 밖 셋째 술막으로 으이 속히 대령 하랏더니, 네가 그지간 어데럴 갔더냐?

말뚝이: 흐흐흐 허허허 시안님(생원님)이나 진사님이나 봉사님이나 도령님이나 영(令)얼 거역지 못 하여, 삼간 마구에 들어가서 척 노시안님 덜미럴 쿡 집어 내어……

진한: (말뚝이를 치며) 이놈! 수상수하(手上手下) 남녀노소(男女老少) 아동주졸(兒童走卒) 많이 모였는데, 그 무슨 소리냐!

말뚝이: 어찌 듣년 말씀이요, 노시안님이 아니라 노새랍니다.

진한: (뒤를 돌아보며) 늙으면 죽어야지 먼귀럴 먹어서 노새럴 노시안님으로 들었네 그려……

마한: 여보게 이 사람아 해필 왈(曰) 먼귀럴 먹을 필요가 있다. 가까운 서견(舌端) 먹거나.

진한·마한·변한: (모두 노래조로) '노새라네'에. (마한과 말뚝이는 '노새라네' 하는 동안 굿거리장단에 맞추어서 대무한다.)

변한: 두우- (마한과 말뚝이 춤을 멈춘다.)

진한: 그 녀미 노새럴 팔아 먹었는지 저당얼 잡혀 먹었는지 알 수 없시니, 다시 한 번 불러서 물어 보세.

진한·마한: (둘이 소리를 합해서) 이념 말뚝우가아.

말뚝이: 으으 흐흐흐 얼수어이. (하며 가까이 다가선다.)

진한: 이려고 저려고 저만침 물러나 양반으 말쌈얼 들어 보라. 그래 네가 그 좋은 말얼 어찌 하였다년 말이나?

말뚝이: 청노새 덜미럴 집어 내어 아래 우이 손질얼 살살 하여, 말안장 달안장 칭칭 다래구 안장 은입등자 호피도듬 전후좌우 걸어 짚어 놓고, 대가리 함박 상모꺼침 일치 채상모(彩象毛)라. 성천 가 담배 무역하여 박천도 가 똥물에 축축이 추기어……

마한: (말뚝이를 치면서) 이념! 그 좋은 담배럴 머 어찌고 어찌 하?

말뚝이: 어찌 들년 말쌈이요? 꿀물이라합니다.

진한·마한·변한: (다 같이 노래조로) 꿀물이라네에……

변한·도령: (곳거리장단에 맞추어서 '꿀물이라네' 하는 동안 대무한다.)

진한: 그러면 그님이 그 좋은 담배럴 꿀물에 추겼이면 어찌하였년지 자세히 물어 보세.

진한·마한·변한: (삼인 소리를 같이 하여) 이념 마알뚜우가아-

말뚝이: 으흐흐흐 얼수우 여어- (하며 앞으로 나와서 바싹 다가선다.)

진한: 예고 저고 저만침 물러나라. 양반으 말쌈얼 들어라, 네 그 좋은 담배럴 꿀물에 추겼시면 어찌 하였단 말이나?

말뚝이: 꿀물에 축축히 추겨 은설함에 가득히 넣고, 은목감이 자죽설대 김해간죽 부산죽 전대에 두르르 말아 말궁에다 딱 부치고, 우산 들고 필연(筆硯) 들고 우산 방망이 들고 남문 밖 셋째 술막으로 으이 속히 대령하여도, 아무 내 아들 놈도 없입디다……

진한: (말뚝이의 등을 탁 치며) 이념! 그 무슨 소리냐?!

말뚝이: 어찌 들년 말쌈이요. 니알(來日)이 야드래랍니다.

진한·마한·변한: (3인 다 같이 노래조로) 야드래라네에-

진한·말뚝이: (타령·곳거리 장단에 맞추어서 '야드래라네' 하는 동안 대무한다.)

마한: 두우-(춤 그친다.)

진한: 자아 그놈이 끝까지 하년 수작이 이상해. 야드래럴 찾아 다녔다년 말인지 야들패럴 찾아 다녔다년 말인지, 자세히 불러 물어 보세.

진한·마한·변한: (3인이 다 같이) 마알뚜우가아.

말뚝이: 으흐흐흐 얼수어어-

진한: 너 이년 야드래럴 찾아다녔다년 말이나, 야들패럴 찾아 다녔다년 말이나?

말뚝이: 야드래럴 찾아 다닐 리가 있습니까, 야들패럴 찾아 다녔습니다.

진한: 네가 야들패럴 찾아 다녔시면, 어디 어디럴 다녔다년 말이나?

말뚝이: 동 개골서 구월 남 지리 북 향산 다 찾아 다녀도 찾일 길이 없어, 소상팔경(관동팔경의 착오?)얼 다 찾아 다녔습니다. (노래조로) 강릉 경포대, 양양 낙산사, 울진 망양정, 평해 월송정, 고성 삼일포, 삼척 죽서루, 통천에 총석정, 간성 청간정 다 찾아도 찾일 길이 없어, 강원도 금강산에 올라 가만히 굽어보니, 일만칠천봉 팔만구암자 동구에 들어 있고, 또 한편얼 바라보니 육환대사 성진이가 석교상 돌다리에 야들개 구실로 팔선녀얼 올려 있고, 또 한편얼 바라보니 함박꽃 뉘영벌레 몸언 크고 발언 적어 바람 부년 대로 뒹뒹하어 있고, 또 한편얼 바라보니 어여쁜 기집아이가 연적같은 젖얼 내어 놓고 춘흥얼 못 이기여 와 질와질 춤얼 추고 있고, 그래도 찾일 길이 없어 한양성중으로 치다라서 삼각산얼 올라 굽어보니, 장안 만호 등얼 달고 삼호만세 부르는데 태평성대가 이 아니냐. 삼각산이 똑 떨어져서 송도 송악산이 되고, 송악산이 똑 떨어져 해주 수양산이 되고, 수양산이 똑 떨어져 강령 가치산이 되어서, 소 잡아먹고 북 메고 말 잡아먹고 장구 메고……

진한·마한·변한·도령·말뚝이 I·II: (모두 서로 각각 일대 <一對> 가 되어 타령장단에 맞추어 깨끼리춤을 한참 추다가 퇴장한다.)

4. 은밀탈춤

은밀탈춤_최괄이



은밀탈춤_노승



은밀탈춤_말뚝이



4. 은을탈춤

: 은을탈춤은 황해도 서쪽 평야지대의 끝에 자리잡은 은을군 은을읍의 장터에서 전승되어온 가면극.(1978.2.23 지정)

제5과장 노승춤

말뚝이 : 쉬-. 야 - 야! 저 중놈의 거동을 보니 범상한 놈이 아니로구나. 우리 새맥시를 데리고 나와 저 중놈을 놀려주자.

최팔이 : 그거 참 좋은 말이다. (말뚝이, 최팔이는 다시 돌아가 새맥시를 데리고 나와 중앙쯤 세워 놓고, 둘이 서로 주고받으며 자진모리장단의 <대꼬타령>을 부르기 시작한다.)

말뚝이·최팔이: 개골 개골 청개골아 에헤 에헤 에헤야 개골이 집을 찾으려면, 미나리 밭으로 오너라. 에헤 에헤야. 은을 장연 처녀는 목화따기로 나간다. 에헤 에헤야. 내려 따고 올려 따고 아전의 거름이 제격이라. 에헤에헤에헤야. 함경도 처녀는 함박장수로 나간다. 에헤 에헤 에헤야. 가리함박 이함박에 모라비 함박이 제격이라. 에헤 에헤 에헤야. 정곡골 처녀는 풋나물 장수로 나간다 에헤 에헤 에헤야. 고비 고사리 두동나물에 구월산 산채(山菜)가 제격이라. 에헤에헤에헤야. 월정골 처녀는 잣 장사로 나간다. 에헤 에헤 에헤야. 외눈박이 죽정박이 쌍눈박이가 제격이라.

새맥시 : (둘이 <대꼬타령>을 부르는 동안 새맥시는 노래에 맞추어 교태 스런 춤으로 노승을 유혹하려 하나, 노승은 이리저리 피하기만 한다. 이러기를 여러 번 하다가 노승은 드디어 새맥시의 교태에 도취되어 멍청이 바라보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대꼬타령> 마지막 부분에 일어나 새맥시에게로 다가가 안으려고 한다.)

말뚝이 : 에라 쉬, 야야. 저 중놈의 행위를 보니 아주 번잡한 놈이로구나. 우리 <병신난봉가(病身難逢歌) >로 저 중놈을 다시 한 번 놀려 주자.

최팔이 : 그거 참 좋은 말이다. (곧이어 둘이서 굿거리장단의 <병신난봉가>를 부르기 시작한다.)

말뚝이·최팔이 : 에헤 에헤 어거야 어야 어야 되여라 니가 내 사랑아. 저 중에 거동 봐라. 칠베장삼에 송낙 쓰고, 백팔염주를 목에 걸고, 붉은 가사 어깨 메고, 에- 에에에 어거야 어야 어야 되여라 니가 내 사랑아. 육환장을 손에 짚고 국화주를 취게 먹고 흔들흔들 거리며- 내려를 온다. 에- 에에에에 어거야 어야 어야 되여라 니가 내 사랑아. 백팔염주를 너 다 줄거매 너하고 나하고 잘 살아 보자. 에- 에에에 어거야 어야 어야 되여라 니가 내 사랑아. 놀아난다 놀아난다. 뒷절 중놈이 놀아를 난다. 에- 에에에에 어거야 어야 어야 되여라 니가 내 사랑아. 별 수 없네, 별 수 없네, 새맥시한테는 중놈도 별 수 없네.

(<병신난봉가>를 부르는 동안 노승은 새맥시의 주위를 돌며 춤을 추기 시작한다. 새맥시 또한 교태스런 춤이 계속 이어지고 노승은 새맥시를 안으려 하다 거절 당하기를 2번 반복 후에, 염주를 새맥시에게 걸어주고 나서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춘다. 새맥시는 노승을 바라보면서 교태스런 춤으로 대무한다. 말뚝이와 최팔이의 노래가 거의 끝날 무렵, 노승은 자신을 희롱하는 노래에 대노하여 말뚝이의 면상을 장삼으로 후려친다.)

말뚝이 : 아이쿠! 중놈이 사람 친다. (말뚝이가 깜짝 놀라 장내를 한 바퀴 돌고 퇴장한다.) (이 때 같이 놀던 최팔이가 대노(大怒)하여 중앙으로 들어서면서 크

게 소리낸다.)

최괄이 : 에라 쉬-. 야, 저 뒷절 중놈이 억세긴 억세구나. 고비고사리 두둑에 도라지 더덕을 먹고 구월산 산삼 씹어진 물을 먹은 저 중놈이 억세긴 억세구나. 야- 이 중놈아. 이번엔 어디 황주(黃州)정방산성(正方山城)으로한 번 가보자-.

(불림) <칭천 백일에 자운동->

(노승과 최괄이가 한참을 춤으로 대무하다가, 최괄이가 노승에게 면상을 얻어맞고 뒤로 물러난다.)

최괄이 : (노승에게 얻어맞고 화가 나서) 쉬 -. 이번엔 찬물을 먹고 다시 한 번 들어가 보자. 저 뒷절 중놈에게는 도깨비 방망이가 제격이라. 어디 도깨비 방망이로 두들겨 보자.

(불림) <참나무 장작 화장작->

(жат은뚱부리장단에 맞춰 춤을 추면서 노승을 한삼으로 사정없이 두들겨내쫓는다.)

(노승은 하는 수 없이 비틀비틀 한쪽으로 퇴장한다. 이때 새맥시는 영주를 내려놓고 탈판 중앙 앞쪽으로 와서 선다. 노승이 쫓겨나간 것을 확인한 후 새맥시 오른쪽으로 다가가 쳐다보려고 하나, 새맥시가 돌아선다. 최괄이는 다시 왼쪽으로 다가가 보려고 하나 역시 몸을 돌린다.)

최괄이 : (새맥시한테) 야, 이년아. 네 년이 저 뒷절 중놈하고 구월산 아흔아홉 골을 돌아다니더니, 네 년의 몸에서 누린내가 물씬물씬 나는구나. 옛취! 옛취! (재채기를 한다.) 그러나 저러나 너 어디냐하고 한 번 놀아 보자.

(불림) <창송 녹죽 군자절->

(한참 춤을 추면서 새맥시의 오른쪽, 왼쪽으로 가서 새맥시를 얼러댄다. 새맥시는 같이 어울려 춤을 추나, 최괄이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

최괄이 : 쉬 -. 야- 그년 비싸긴 비싸구나. 아주 뽀뽀하구나. 어디 다시한번 얼러 보자.

(불림) <화간점무 분분설->

(새맥시, 최괄이와 어울려 갖은 교태를 다하며 춤을 춘다. 최괄이가 만족하여 크게 웃고 나서)

최괄이 : 쉬-. 그러면 그렇지 네가 별 수 있느냐. 이 최괄이를 몰라 보고. 그러나 저러나 너는 이제 내 마누라가 되었으니 어디 한바탕 놀아 보자.

(불림) <괭창 괭창 쾌괭창->

(둘이서 화사한 춤을 한바탕 춘 후 새맥시를 데리고 퇴장한다.)

5. 양주별산대놀이

양주별산대놀이_소무	양주별산대놀이_노장	양주별산대_신할아버지
		
		

양주별산대놀이_미알할미



5.양주별산대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현재의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에 전승되고 있는 탈놀이. 그 근원은 서울 중심의 경기지방에서 연희되어 온 산대도감극(山臺都監劇)의 한 분파로서, 녹번(碌磻)·아현(阿峴) 등지의 본산대(本山臺)와 같다.(1964.12.7. 지정)

--	--

6. 송파산대놀이

송파산대놀이_포도부장



송파산대놀이_미알할미



송파산대놀이_소무(애사당)



송파산대놀이_선님



6. 송파산대놀이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지역에서 전승되던 탈놀이. 서울 중심의 경기지방에서 연희되어온 산대도감계통극(山臺都監系統劇)의 중부형의 한 분파로서, <양주별산대놀이>와 함께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1973.11.5. 지정)

제11과장 -샌님·미알·포도부장-

(샌님이 작은마누라 -소무-와 함께 어깨를 걸고 춤추며 마당을 돈다. 이때 미알이 지팡이 짚고 나오니, 샌님이 열린 소무를 뒤에 숨겨 놓고 시치미를 떼면서)

샌님: 쉬-이! 거 마누라 아녀?

미알할미: 아니 영감 아뇨?

샌님: 아니 그런데 할미 얼굴이 왜 이 모양이 됐나?

미알할미: 아! 영감 찾아 다니느라구 저 강원도 금강산에 들어가 칩뿌리, 참나무뿌리도 캐 먹고, 밤도 따 먹고, 도토리도 주워 먹고 해서 독이 올라 얼굴이 이렇게 되었지.

샌님: 그랬어. 그러나 저러나 마누라 없는 동안 하도 적적해서 작은집을 하나 두었지. 그러니 이왕 나온 김에 인사나 하고 들어가오.

미알할미: 예끼 여보, 기껏 찾아서 왔더니 작은 집이라니 그 큰 집은 어디다 두고 작은 집이야?

샌님: 작은 집이 아니고 작은마누라를 두었으니 인사나 하우.

미알할미: 뭐라고? (놀란듯이) 작은마누라를 두었다고! 아이고 분해라 어디 보자! 이년! 이년! (소무를 붙잡고 실강이를 벌인다. 그러나 힘에 부친 미알할미가 뒤로 나자빠진다.)

샌님: 왜들 이래. 그만두고 들어가지 못해! (미알보고 나무란다.)

미알할미: 날보고 들어가라구. 아이고 분해! 어디 너희들 잘 먹고 잘 사나 봐라. 나는 간다. 너희 연놈들아! (굿거리장단이 나오면 퇴장한다. 이때 포도부장이 등장한다.)

(샌님이 소무와 춤추면서 소무 뒤에서 좌우 어깨 너머로 넘겨보며 춤추다 앞으로 나와 양손을 맞잡고 놀다가, 손을 놓고 까치 걸음으로 춤추며 마당을 돌 때,

포도부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때를 놓칠세라 얼른 소무와 맞잡고 춤춘다. 선생이 화가 나서 팔을 걸어 부치고 포도부장 덜미를 쳐 쫓아 버리면서 장단이 멈춘다.)

선님: 애애,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단 말이나? 내 죽으면 산 밑에 한나절 같이(일천평) 개똥 밭도 네가 가질 거구. 방에 들어가 깨진 농짱도 너 다 가질 거구, 부엌에 들어가 깨진 그릇도 너 다 가질 거구, 밤 한 톨 도토리 한 톨이 생겨도 달고 단 밤은 내가 먹고, 쓰고 쓴 도토리는 너 먹을 거다. (소무가 듣고 있다가 선생 얼굴을 탁 치면 굿거리장단이 나온다.)

(선님이 소무 양손을 잡고 춤을 출 때, 포도부장이 가까이 가서 팔을 뚝 쳐 떼어 버리고 소무 양손을 잡고 춤춘다. 선생이 소무를 붙잡으려 하자, 포도부장이 가로막으며 빙빙 돈다.)

선님: 애 젊은 놈아! 젊은 것들이 좋아하는 건 어찌 하겠냐? 마지막으로 마누라 손목이나 만져 보게 해 다오. (풀이 죽어서 포도부장이 소무 손을 잡고 자기 손을 선생에 내주니, 선생이 손을 잡고 어루만지며 얼굴에 비비다가 살펴보니, 포도부장의 손인지라 뿌리치며) 이 안감할 녀석아! (부채로 포도부장을 탁 치면 장단이 나오며, 춤추며 퇴장한다.)

7. 퇴계원산대놀이

퇴계원산대놀이_선님	퇴계원산대놀이_말뚝이	퇴계원산대놀이_취발이(쇠뚝이)
		

7. 퇴계원산대놀이

: 퇴계원산대놀이는 1930년대까지 남양주시 퇴계원(당시 양주)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던 가면극이다. 조선시대 퇴계원은 교통의 중심지로 상업이 발달했던 곳이다. (2010. 지정)

(입장) (샌님은 부채를 펴서 앞으로 쪽 내밀며 크게 숙였다가 들어 뒤로 유건(儒巾)을 넘기면서 또는 뒷짐을 한 채로 말뚝이를 쫓아간다.)

(서방님은 부채를 좌에서 위로 부치며 샌님을 쫓아간다.)

(도련님은 부채를 펴 뺨 가까이 대고 아주 빠르게 부치며 쫓아간다.)

말뚝이 : (말채찍을 휘두르고 뒤로 크게 까치춤을 추며 샌님 일행을 데리고 장중(場中)으로 들어서는데, 한 장단은 샌님을 부르고 또 한 장단은 서방님과 도련님을 붙여서 부른다.)

아, 샌님! 아, 서방님~ 도련님. 아, 샌님! 아, 서방님~ 도련님. 아, 샌님!

(샌님 일행을 장중(場中)으로 인도하여 악사석(樂士席)을 향해 반달형으로 세워놓고, 잠시 춤을 추며 장장(場中)을 돌아다닌다.)

샌님 : 아, 애 말뚝아? 아, 애 이놈! 말뚝아?

말뚝이 : (춤을 추다 말고 황급히 샌님 앞으로 가서.)

아, 네~ 이. 찾아 계시옵니까 샌님?

샌님 : 이렇게 남이 저 물어 어두워 오는데, 너 어디 가서 오늘 거처할 곳을 알아보아라.

말뚝이 : 어허, 이거 참! 야단났네. 해는 저서 어두웠는데 대체 어딜 가서 하룻밤 거처할 곳을 아아보나 그래! 그래도 이 번화(繁華)한 곳 어딘가에 허름한 숙소가 없을라고? 어디 한번 찾아보자.(장중(場中)을 이리 저리 돌아다니며) 방삼니다~ 방! 아, 하룻밤 묵을 방을 삼니다~ 방. 아, 이렇게 번화한 거리에 하룻밤 묵을 방이 없다니. 이거 정말 야단났구만.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으니 어디 다시 한번 찾아보자. 방을 삼니다~ 방! 아, 하룻밤 묵어갈 방을 삼니다~ 방을 사!

쇠뚝이 : (악사석(樂士席)앞에 소무와 같이 앉아 있다가 일어나며, 이때 소무는 퇴장한다.)

아니! 어느 후레개~ 자식이 남 내외(內外)가 한참 재미를 보고 있는데 방을 삼니다~ 하고 소릴 질러대며 휘방놓고 지랄이야 그래!

말뚝이 : 아니 대관절 어떤 놀이기에 아직 초저녁인데, 벌써부터 배를 맞대고 재미를 봐!

쇠뚝이 : 아, 벌써부터 라니. 아니, 내외가 재미를 보는것도 시때가 따로 있단 말이나 이놈아.

말뚝이 : 그건 그렇다고 치고. 가만있어 보자. 목소리를 들어보니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인데? 옳거니, 이제야 알겠다. 아, 이놈을 여기서 만날 줄이야! 아이구~ 애애애. 너를 여기서 만나니 천만다행이다. 아니, 그런데 네가 여긴 웬일이냐 그래!

쇠뚝이 : 어느 농인가~ 했더니 바로 네놈이었구나. 너야말로 여긴 웬일이냐. 보아하니 아주 난처한 일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말뚝이 : 말도 마라 말도 마. 다름이 아니라 내가 우리댁 서방님께서 과거날이 당도해 샌님, 서방님, 도련님을 모시고 저기 저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저기서 산대굿을 하지 뭐냐. 그래 거기서 산대굿 구경을 하다가 날이 어두웠는데 샌님께서 하룻밤 거처할 곳을 찾아 헤매는 중이란다. 그러니 어쩌겠느냐. 네가 한번 마땅한 곳을 마련해 주려무나.

쇠뚝이 : 듣고 보니 입장이 딱하게 되었구나. 아, 그래 그 작자들이 구경하는데 미쳐서 하룻밤 묵을 방을 마련치 못했다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장중(場中)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말뚝이에게로 온다.)

말뚝이 : 애애! 그래 어떻게 되었느냐, 거처할 데를 정했느냐.

쇠뚝이 : 정하고 왔다. 정하긴 정했지만….

말뚝이 : 아, 그래. 어떻게 생긴 곳이냐.

쇠뚝이 : 그 집 생김새를 보면, 네모 난 구석마다 말뚝을 콕콕 들이박고, 빙빙 돌아가며 층층이 새끼띠를 두르고 문을 하늘로 낸, 아주 고래등같이 큰 기와집이다.

말뚝이 : 애 이남아. 그거 돼지우리가 아니냐? 그 집을 들어가려면 물구나무를 서서 들어가야겠구나. 애 그건 그렇고 어서 우리댁 샌님 일행을 들어 모시자.

쇠뚝이 : 애 이남아. 내가 왜 네 상전을 들어 모신단 말이나.

말뚝이 : 이놈아. 잔말 말고 어서 들어 모시자.

(불림으로) “쳐라”

(말뚝이는 입장때와 같으나 서방님과 도련님을 부를 때는 양손을 샌님 일행 앞으로 쪽 내밀어 뒷걸음질을 친다.)

쇠뚝이 : (샌님 일행의 뒤에서 양손을 앞뒤로 휘두르면서 돼지를 몰 듯 한다.)

(돼지우리로 들어갈 때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차례대로 들어가는데, 양손을 땅바닥에 대고 양발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물구나무서듯 꺾충 뛰어들어간다. 각자 들어가는 대로 사방을 힐끔 힐끔 둘러보며 옷매무새를 하고 부채질을 한다.)

(말뚝이가 제일 먼저 물구나무로 들어가고, 쇠뚝이는 자연스럽게 걸어서 악사석(樂士席) 앞쪽에 가서 앉아 있다.)

샌님 : 애, 말뚝아?

말뚝이 : 아, 네이~ 부르셨습니까? 샌님?

샌님 : 이 거처를 어떻게 마련했느냐!

말뚝이 : 소인이 정한 것이 아니고 아는 친구 쇠뚝이란 놈이 마련해 주었습니다.

샌님 : 오~ 그래! 아주 대단히 정갈한 것이 깨끗해서 좋구나.

말뚝이 : (쇠뚝이에게 바빠 가서)

애애애.

쇠뚝이 : 아!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야단이나 그래.

말뚝이 : 우리댁 샌님께서 “이 거처를 누가 정했느냐?” 하기에 내가 정해 줬다고 했다. 그랬더니 샌님께서 대단히 정갈스럽고 깨끗해서 좋다고 하시면서 너를 한번 봤으면 하신다. 그러니 너, 우리댁 샌님을 한번 찾아봐라.

쇠뚝이 : 내가 왜 그 양반들을 본단 말이나.

말뚝이 : 너 모르는 소리다. 사람이란 찾을 때가 좋은 것이니, 이 말 저말 하지말고 어서 가서 한번 봐라.

쇠뚝이 : 그렇게 해야 할까?

말뚝이 : 아, 이놈아!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어서 가봐라.

쇠뚝이 : 그럼, 네 말대로 한번 뵈고 오마!

(불림으로) “쳐라 쳐라 철철, 철철철철 쳐라”

(깨끼춤을 추고 가서 귀퉁이까지 앞뒤로 휘두르면서, 샌님 일행 앞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행색을 살펴본 다음, 말뚝이 앞으로 달음질로 와서)

애애애애! 아니 그래. 그놈들이 어디 양반에 새끼들이냐. 박수무당의 무리들이 분명하더라! 그 샌님이란 작자를 보니, 도포는 입었으나 손에는 화선(花扇)을 들고 대가리에는 그 무슨 이상스런 보자기를 뒤집어썼고, 서방이란 작자도 그저 그렇고, 도령이란 녀석을 보니, 그놈은 무당의 새끼 모양 푸른 전복(戰服)을 입고 대가리에는 사당보자기 같은 것을 뒤집어 썼으니, 그게 어디 양반에 자식들이냐, 내가 보기엔 그저 먹고, 뛰고, 놀기만하는 박수무당의 새끼들이 분명하더라.

말뚝이 : 애 그렇지 않다. 우리덕 쌤님이 집안이 어려워 의복을 세를 내 얻어 입고 와 구색이 좀 맞지 않아 그렇지. 분명한 양반들이시다.

쇠뚝이 : 아무리 집안이 어려워도 그렇지. 그 꼴이 그게 뭐냐 그래!

쌤님 : 말뚝아? 아, 애! 말뚝아?

말뚝이 : 아, 예~ 갑니다요. 찾아 계시옵니까? 쌤님!

쌤님 : 너는 우리만 여기 두고 어딜 그렇게 쏘 다니냐.

말뚝이 : 쌤님께서 이 거처를 마련해 준 쇠뚝이를 좋게 보신 것 같아, 그놈을 찾아 다녔습니다요.

쌤님 : 아 그래, 어디로 그렇게 찾아 다녔단 말이나.

말뚝이 : 네~ 아, 소인이 그놈을 찾으러 앞남산, 박남산, 쌍계동, 벽계동에서 남대문 안을 들어서서 일간동, 이목골, 삼청동, 사직골, 오궁터, 육조앞, 칠관현, 팔각재, 구리개, 십자각에서 배우개 네거리를 지나 언청다리, 쇠경다리를 건너 아래윗동네를 돌아다니며 모래알 째깍까지 속속들이 찾아봐도 도무지 그 놈을 찾을 길이 없었는데, 아는 친구를 만나 물어봤더니 저기 저 동소문 밖으로 나가드라 하기에 차츰차츰 걸어 여길 당도해 보니, 아. 그 놈이 여길 와 있지 않겠소. 그렇게 그 놈을 찾아 헤매느라 이렇게 늦었소.

쌤님 : 아 그래, 그놈을 만나 무엇을 했느냐.

말뚝이 : 하도, 만난 지가 오래돼 주막거리에서 탁배기를 서너 잔하고 오는 길ियो.

쌤님 : 억끼! 저런 고약한 놈을 봤나. 아 그래서, 네 상전들만 덩그러니 여기다 두고 네놈들만 회포를 풀고 왔단 말이나 그래. 억끼! 후레개자식들 같으니라구!

쇠뚝이 : 애애애, 그놈의 음성을 들어보니 이 다음에 뭘 하던지 한 자리 할 음성이다. 네 말대로 쌤님이란 작자에게 문안인사를 좀 드려 봐야겠다.

쌤님? 소인 문안 들어가오.

(불림으로)“쳐라 쳐라 철철, 철철철철 쳐라!”

(깨끼춤을 추다가 멈춰 서서, 양손을 양 무릎에 대고 쌤님에게 드리고 반응을 본 다음, 곧바로 서방님에게 가서 또 문안을 드린다. 그리고는 빠른 걸음을 말뚝이에게 뛰어온다.)

쌤님? 쌤님? 아, 쌤님~ 소인!

서방님? 서방님? 아, 서방님~ 소인!

(말뚝이에게로 황급히 온다.)

애애애애, 내가 쌤님과 서방님께 문안을 드려보니 양반들이 분명하더라. 아, 나 같으면 “네 에미 애비 밤저녁이면 그 짓거리들은 잘 하더냐?”할텐데, 부채질을 살살하면서 점잖게 있는 것을 보니 양반은 양반이더라.

말뚝이 : 암, 양반들이시고 말고! 이번에는 저기 끝에 계신 도련님께 문안을 잘 드려야지 잘못 드렸다가는 아주 개망신을 당한다. 그러니 그리 알고 어서 갔다 오너라.

쇠뚝이 : 저~기. 재 말이나? 아니 쌤님과 서방님께 문안을 드렸으면 됐지. 조 녀석한테까지 문안인사를 올려야 한단 말이나. 내가 상놈 된 것이 죄다.

말뚝이 : 아, 이놈아! 잔소리 말고 어서 갔다 오너라.

쇠뚝이 : (불림으로)“쳐라”

(깨끼춤을 추고 가서 도련님을 밀어내고 서서 문안을 드린다.)

도련님? 도련님? 아, 도련님 남의 종 쇠뚝이 문안 드리오?

도련님 : (부채를 잠시 접었다가 획 퍼면서)

오~냐!

그래? 집안 모두가 두루두루 무고하더냐!

쇠뚝이 : (달음질로 뒤를 힐끔힐끔 돌아다보며 황급히 말뚝이에게로 와)

애애애애! 아, 고놈 참. 아, 고 어린 녀석이 맹물은 아니더라. 다른 아이들 같으면 먹을 것이나 달라고 조를 텐데. 아, 글썸! 고 녀석 한다는 말이 “오냐~ 그래! 집안 모두가 두루두루 무고하더냐” 하니 고놈도 양반에 새끼는 양반에 새끼더라.

샌님 : 애, 말뚝아? 아, 애 이놈 말뚝아~?

말뚝이 : 아, 네~ 이 샌님! 말뚝이 대령이오.

샌님 : 무얼 꾸물대고 있는 게냐. 어서 냉큼 잡아들이지 않고!

말뚝이 : 허 참! 이거 야단났네 그려.

(쇠뚝이에게로 황급히 가서는)

애애애. 큰일났다. 우리댁 샌님께서 너를 잡아들이라는 분부다.

쇠뚝이 : 아, 이놈아. 내가 왜 그놈들 앞에 불러간단 말이냐.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말뚝이 : 그거야 난들 알겠느냐. 그러니, 어서 들어가 무슨 일로 그러는지 그 연유나 알아보자구나. 아, 이놈아 어서?

(쇠뚝이를 앞세워 등을 떠밀어 샌님 앞으로 와 꿇어 앉힌다. 샌님을 등지고 앉는다.)

남의 종 쇠뚝이를 잡아들였소~!

샌님 : 고안 놈 같으니라고. 네 이놈! 네놈이 감히 양반을 능멸하고 희롱했으니, 네 죄를 네가 알고 있으려다!

쇠뚝이 : 대체 소인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말씀이온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샌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소.

샌님 : 저런 후레개아들놈을 봤나. 여봐라~ 애 말뚝아. 저놈을 옆어놓고 대매의 곤장을 쳐서 밖으로 내 쫓아라.

말뚝이 : 샌님! 저놈이 말버릇은 없으나 본시 심성은 착하기 그지없는 놈이니, 샌님께서 너그러이 봐주시는 것이 어떠할지요.

샌님 : 아니다. 어서 곤장을 쳐서 내쫓아라.

말뚝이 : 네 이~ 이것 참, 야단났네.

(곤장을 어깨에 얹고 쇠뚝이에게 작은 소리로)

애, 내가 곤장을 크게 치는 시늉을 할 테니 죽는다는 소리를 치며 엄살을 부리거라.

샌님 : 네 이놈들! 대체 무어라고 쑥덕거리며 공론을 하느냐.

말뚝이 : 아, 네이~ 이놈이 하는 말이 저도 이름 석자가 분명한데 어느 되먹지 못한 놈이 이놈! 저놈!하느냐고 하더이다.

샌님 : 아니 뭐야! 아 그래서, 저 상놈이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이 뭐라 하더냐?

말뚝이 : (땅에다 이름을 쓴다.)

아당 아자(字)에다 번개 번자(字)라 하오.

샌님 : (부채를 접어들고 발을 앞으로 내밀고, 허리를 굽혀 들여다보고는)

대체 이게 뭐라고 그린 글자냐.

(더듬거리면서)

아당 아자~ 번개번? 아당아, 번개번?

그 상놈에 이름이 어째 이렇게 거북스럽더냐?

말뚝이 : 이름이 거북스럽더라도 한번 불러보시오.

샌님 : 험! 험! 험! 아~아~아~

쇠뚝이 : 아, 샌님 누가 샌님에 목이라도 조른답디까? 왜 말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야단이오. 그게 무슨 글자인지 어서 불러보시오.

샌님 : 험 험! 아, 아, 아자 번자야~?

쇠뚝이 : 아 세상에 그렇게 부르는 글자가 어디 있소. 샌님도 글줄 깨나 읽었을 터인즉, 천자문(千字文) 읽을 때처럼 천지현황(天地玄黃)~ 이렇게 붙여서 불러보란 말씀이오.

샌님 : 저놈이 상놈치고는 대단히 까다로운 놈이로구나.

부르자니 그렇고 아니 부르자니 양반 체면이 말이 아니고 어찌됐든 부르긴 불러봐야겠다. 아, 아, 아번님?

말뚝이 : 오냐~ 오냐! 그래 별일 없이 잘지냈느냐!

샌님 : 저저저, 저런 죽일 놈을 봤나 그래. 세상천지에 저런 후레개 같은 놈이 또 있나. 제 상전을 놀리고 모독을 하니, 저놈을 하여금 세상이 다 망하겠다. 여봐라~!

남의 종 쇠뚝이는 내 종 말뚝이놈을 잡아다 곤장을 쳐 집밖으로 내 쫓고, 오늘부터 내 집에 들어와 일을 보도록 하여라.

쇠뚝이 : 네 이~ 샌님! 그 아주 지당 하오신 분부요.

애 이놈아, 그 패랭이 갖하고 채찍을 이리 내라. 샌님께서 너를 잡아들여 곤장을 쳐 내 쫓으라는 분부시다. 그러니 어서 들어가자. 사람 팔자란 본시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것이다. 그러나 저러나 친구 생각을 해서 곤장을 크게 치는 시늉을 할 테니, 너는 죽는 소리를 치며 엄살을 떨거라. 알겠느냐?

말뚝이 : 네 말대로 그렇게 하마!

쇠뚝이 : 샌님? 말뚝이놈을 잡아 대령했소이다.

샌님 : 오~ 그래. 그놈에 불기를 까고 매우 쳐라.

쇠뚝이 : 네 이~.

(괘자를 걸어 등에 붙이고 곤장을 친다.)

말뚝이 : 아이고~ 나 죽는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쇠뚝이 : 아, 그런데 샌님? 이놈이 백 냥을 줄 테니 곤장질을 말아 달라고 하는텨쇼!

샌님 : 안 된다. 그러니 어서 불고를 내 밖으로 내치거라.

쇠뚝이 : 이것 참, 야단났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말뚝이에게로 가서 작은 소리로)

애, 샌님께서 아니 된다고 하시니 어찌겠느냐. 이번에는 더 크게 엄살을 부려봐라.

(곤장을 친다.)

말뚝이 : 아이고~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아이고~ 나 죽는다.

쇠뚝이 : 샌님? 아, 샌님~?

샌님 : 왜 또 그러느냐?

쇠뚝이 : 이놈이 이번에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 백 냥을 더 보태 이백 냥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깁쇼!

샌님 : 뭐라고? 이백 냥!

쇠뚝이 : 네이~ 이백 냥을 준다고 하더이다.

샌님 : 오~ 그래! 저놈을 내가 데리고 있던 정을 새악해서 그만큼 봐주는 것이니, 그 돈 이백 냥에서 백아홉 냥 구동오푼오리는 저 서방님 노비에 보태쓰게 하고, 나머지 남은 돈은 술 한 동이를 사다가, 거기다 물 한 동이를 타서 휘휘 저어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후두설사나 하다 뉘져라. 그러나 저러나 과거 날이 내일이니 어서 서둘러 한양으로 올라가야겠다. 그러니 어서들 채비를 놔라.

쇠뚝이 : 네 이~ 지당하신 분부요. 애 말뚝아 뭘 하느냐, 어서 서두르지 않고!

(불림으로)“쳐라 쳐라 철철 철철철철 쳐라”

(모두가 입장했을 대와 같이 퇴장한다.)

8.속초 사자놀이

속초사자놀이-사자		

8.속초 사자놀이

:한국전쟁으로 인해 함경도 출신 피난민이 청호동 아바이마을에 집단거주하면서 전승된 전통민속극이다.

(사자 한 마리가 쓰러진다.)

꺽쇠 : 췌 양반. 사자가 쓰러졌습네. 어찌하면 좋겠습네.

양반 : 어허. 사자가 쓰러졌구나. 이걸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꺽쇠 : 사자가 맥을 났습네. 내가 한번 보겠습네.

(꺽쇠가 사자를 살펴본다.)

꺽쇠 : 췌 양반 내가 봐서는 잘 모르겠습네.

양반 : 꺽쇠야. 내가 아까부터 이 놀이판에 검은색 옷을 입고 꼭 의원처럼 생긴 사람을 보았다.

오. 저기 있구나. 니가 모셔오도록 해라.

꺽쇠 : 알겠습네.

(꺽쇠가 의원을 모시고 온다.)

꺽쇠 : 의원 아바이. 우리 사자가 맥을 났습네. 한 번 봐 줘세.

(의원이 사자를 진찰한다.)

꺽쇠 : 의원 아바이. 우리 사자가 어째 그럼메?

의원 : (배가 아픈 모양을 한다.)

꺽쇠 : 사자가 배가 아파서 그럼메?

의원 : (배가 아픈 모양을 한다.)

꺽쇠 : 배가 고파서 그럼메?

의원 : (고개를 끄덕임)

꺽쇠 : 췌 양반.

양반 : 그래 꺽쇠야. 의원 아바이가 뭐라 그러니?

꺽쇠 : 이 사자가 몇날 며칠을 먹지를 못해서 배가 고파서 쓰러졌다고 함네.

양반 : 사자를 먹일려면 조그만 아이들이 좋은데... 보자.(관객들을 살펴본다.)

그렇다면 꺽쇠야. 저기 보이는 울산바위 가서 토끼라도 한 마리 잡아오 너라.

꺽쇠 : 아니 나보고 저기 울산바위까지 갔다오라는 말씀임메?

양반 : 그래 저기 보이지 않느냐?

꺽쇠 : 아이. 울산바위는 너무 멀어서 못감네.

양반 : 그럼 이 뒷산에 가서 토끼라도 잡아오너라.

꺽쇠 : 알겠습네. 내 갔다 오겠습네.

(꺽쇠가 토끼를 가지러 간다.)

양반 : 어허. 사자가 쓰러져서 어찌한단 말이냐?

(꺼쇠가 토끼를 가지고 온다.)

꺼쇠 : 양반 아바이. 토끼를 잡아왔슴메.

양반 : 그래 어서 먹이도록 해라.

꺼쇠 : 사자야. 토끼다. 꿀떡 삼케.

(사자가 토끼를 먹고 일어난다.)

꺼쇠 : 사자가 맥이 났슴메.

양반 : 그래 사자가 살아났구나. 말장으로 놀아보자꾸나.

(다른 출연진 입장)

(사자춤 -입사-)

9. 예천청단놀이

예천청단놀이_지연광대 봄	예천청단놀이_지연광대 여름	예천청단놀이_지연광대 가을
		
		

예천청단놀이_지연광대 겨울



9. 예천 청단놀음

: 초여름이나 팔월 한가위 때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에서 행해진 대사나 사설이 없는 가면목극(假面默劇) 형태의 민속놀이.(2017. 8.14 지정)



10. 하회별신굿탈놀이

하회별신굿탈놀이_양반



하회별신굿탈놀이_부네



하회별신굿탈놀이_선비



하회별신굿탈놀이_이매



하회별신굿탈놀이_백정



하회별신굿탈놀이_중



하회별신굿탈놀이_초랭이



하회별신굿탈놀이_각시



하회별신굿탈놀이_할미



10. 하회별신굿탈놀이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에 전승되어오는 탈놀이. 하회별신굿탈놀이는 마을굿의 일종인 별신굿에서 연행하는 가면극, 즉 마을굿놀이 계통의 가면극이다. 마을굿놀이 계통 가면극은 마을굿에서 유래해 발전한 토착적·자생적 가면극들을 말한다.(1980.11.17. 지정)

< 양반 선비 마당 >

초랭이 : "양반요-, 양반요-, 얼른 나오소."

< -굿거리-. 양반은 여덟팔자 황새걸음으로 '등장 춤'을 추며 등장한다. 초랭이는 연신 바쁘게 쫓아 다니며 부산을 떠다. 묘사하자면 양반 뒤에서 양반 흉내를 내고, 부네 흉내를 내고, 부네의 치마를 들치는 등등..., 이때 선비는 반대쪽에서 부네를 데리고 등장한다. 양반과 선비가 무대 중앙에 위치하면 초랭이가 뛰어 나오면서 '양반요, 양반요-'한다. -상쇠는 이를 신호로 가락을 중단한다.->

초랭이 : "양반요, 나온 김에 서로 인사나 하소." (인사하는 행동)

양반 : "여보게 선비, 우리 통성명이나 하세."

선비 : "예, 그러시더."

<양반과 선비가 서로 절을 하려고 할 때, 초랭이가 양반 머리 위에 엉덩이를 돌려대고 선비에게 자기가 인사를 한다.>

초랭이 : "헤헤..., 니 왔니꺼?"

양반 : "옛기, 이놈."

선비 : "저 놈의 초랭이가 버릇이 없구만요."

양반 : "암만 갈채도 안되는 걸 별도리가 있나."

선비 : "아니 그래가지고 이마에 대쪽같은걸 쓰고 양반이라카나?"

<초랭이는 양반과 선비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며 관중을 그 대화속으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틈나는 데로 부네에게로 가서 추근대며 전체마당을 분주히 돌아다닌다.>

초랭이 : "지도 인사, 나도 인사, 인사하긴 마찬가지데 무슨 상관이니꺼."

<초랭이는 양반이나 선비를 두고 대사를 할 경우는 가운데 위치에서 대사를 한 후 얼른 뒤로 피하는 행동을 한다.>

양반 : "어흠, 그래 내가 양반이 아니고 또머로? 여기에 내보다 더한 양반이 어디있노"

<선비는 부네를 부르고 자리에 앉는다. 양반도 앉는다. 부네는 가만히 선비에게로가 선비의 어깨를 주무른다. 선비는 부네가 주무르는 손을 어루만지며, 양반이 보란 듯이 다정스레 대한다. 양반은 선비의 그런 태도에 못 마땅하게 여긴다. 초랭이는 이러한 양반의 마음을 읽고 그를 놀려주기로 생각한다.>

초랭이 : "양반요, 어깨 주물러 주까요?"

<양반의 '오나' 소리에 초랭이는 부네의 흉내를 내듯 양반의 어깨를 몇 차례 주무르다가 무릎으로 양반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한다. 양반은 초랭이의 우악스러

운 안마(?)에 더 이상 못 참겠던지 초랭이를 뿌리친다.>

양반 : "아이쿠, 이놈 어깨 부서질따."

<초랭이는 뒤로 나동그라진다. 다시 일어서 양반의 뒤통수를 세게 내리치려는 행동을 한다. (초랭이는 늘상 이런 식의 행동을 한다. 즉, 양반 앞에서는 '예예' 하다가도 뒤에서는 틈만 있으면 양반의 허세를 비꼰다. 풍자극에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하겠다.) 부네는 어깨 주무르는 것을 그만 두고 원래 자리로 되돌아 간다.>

11. 강릉관노가면극

강릉관노가면극_시시딱딱이	강릉관노가면극_양반	강릉관노가면극_각시
		
		

11. 강릉관노가면극

: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매년 단오제 때 행하던 조선시대 관노들의 가면극. 우리나라 가면극 전승의 주류를 이루는 산대도감 계통 극과는 그 계통을 달리하는 서낭제탈놀이의 하나이다.(1967.1.16. 지정)



12. 동래야류

동래야류_영감	동래야류_제대각시	동래야류_종가도령
		
		

동래야류_영노



동래야류_말뚝이



12.동래야류

:야류(들놀음)는 경상남도 내륙지방에서 행해지던 오광대가 바닷길을 따라 수영·동래·부산진 등에 전래된 것으로, 야류란 이름은 넓은 들판같은 곳에서 놀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오광대가 전문연예인에 의해 행해진 도시가면극이라면 야류는 비직업적인 연희자들, 즉 마을사람들에 의해 토착화된 놀이다.(1967.12.21.지정)

제3과장 -영노 -

머리에는 개털관을 쓰고, 흰 두루막을 입고 손에는 부채를 쥔 양반이 곳거리장단에 맞추어 등장하여 무대를 나와 다닌다. 그러면 이어, 머리에는 얼룩얼룩한 큰 보자기를 뒤집어 쓴 영노가 입에서 '비-비-' 소리를 내면서, 역시 곳거리장단에 맞추어 양반의 뒤를 따라 다닌다.

비비양반: (이상하여 뒤돌아 영노를 보고) 니(네)가 무엇고? (무엇이냐?)

영노: 날물에 날 잡아 묵(먹)고 들물에 들 잡아 묵(먹)는 영노다. 양반 아흔 아홉 잡아 묵고, 네 하나 묵으면 등천(登天)한다.

비비양반: (겁을 내는 표정으로 약간 뒤로 물러서며) 나는 양반이 아니다.

영노: 그러면 뭐꼬?

비비양반: 내가 똥이다.

영노: 똥은 더 잘 묵는다?

비비양반: 내가 개다.

영노: 개면 맛있고 더 좋다.

비비양반: 내가 돼지다.

영노: 돼지는 한 입에 셋씩 묵는다.

비비양반: 내가 소다.

영노: 소는 한 입에 돌씩 묵는다.

비비양반: 내가 풀새기(쌌기)다.

영노: 풀새기도 잘 묵는다.

비비양반: 내가 구리(구렁이)다.

영노: 구리도 잘 묵는다. (하고는, 양반의 두루막을 잡아 당긴다.)

비비양반: (안 끌릴려고 하다가 이때에 부채를 땅에 떨어뜨린다.)

영노: (양반의 부채를 발로 찬다.)

비비양반: (그바람에 넘어져서는 '휴-휴-'하고, 숨을 내쉬면서 간신히 일어나 부채를 찾으니, 부채가 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영노가 보는가 안 보는가를 힐끔 힐끔 쳐다보면서, 기회를 보아 부채 있는 데로 살금살금 가까이 가서 손으로 그 부채를 잡으려고 한다.)

영노: (달려와서 양반의 손을 차버린다.)

비비양반: (차버리는 통에 손가락을 다쳤으므로, 주머니에서 침을 내어 손가락에 침을 주어 손가락을 고친다. -형용사로 함-그리하여 또 부채 있는 데로 살금 살금 가서 이번에는 발로 부채를 눌러서 끌어 당긴다.)

영노: (이때, 양반에게로 와서 양반의 발을 차버린다.)

비비양반: (발가락을 다쳤으므로, 또 침을 내어, 발가락을 고친다. -형용사로 함-)

영노: ('비-비-'소리를 내면서 사방으로 돌아다닌다.)

비비양반: (영노가 저 멀리 가 있는 틈을 타서 살그머니 기어가 부채를 집어 가지고는 좋아서 부채를 퍼들고 활활 부치면서) 허허 이 사람들아, 내가 오늘 외출을 했다가 저놈을 만나 죽을 욕을 당했다. (악사가 꿩과리로 응박캉캉의 장단을 친다.) (함께 어울리어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한바탕 덧베기춤을 춘다.)

13.수영아류

수영아류_수양반	수영아류_종가도령	수영아류_말뚝이
		
		

13.수영야류

: 수영야류(水營野遊)는 부산 남구 수영동에서 전승되어온 가면극으로, 현재 수영동 수영공원 내에 전수회관을 두고 있다. 수영야류의 직접적인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약 200년 전에 좌수영 수사가 병졸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초계로부터 대광대패를 데려와 공연한 것을 배웠다는 설, 초계에 살던 수영 사람이 초계에서 배워와 시작되었다고 하는 설이 그것이다. (1971.2.24. 지정)

--	--

14. 고성오광대

고성오광대_원양반



고성오광대_종가도령



고성오광대_말뚝이



14. 고성오광대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에 전승되고 있는 탈놀이.(1964.12.28. 지정)

제2과장 오광대놀이

(종락)

⋮

종가도령 : (양반이 '저 밑에선 도령'할 적에 점잖게 양반다리로 앉아서 수염을 쓰다듬는 행세를 하고, 옆구리에서 거울을 빼어 들고 콧털을 뽑다가 재채기를 하며 넘어진다.)

말뚝이 : 응마 캁캁 (장단은 덧배기를 연주하고 이 장단에 맞추어 한바탕 춤을 어울러 춘다.)

원양반 : 쉬~~(음악과 춤을 멈춘다)이때가 어느 때냐 춘삼월 호시절이라, 석양은 재를 넘고, 까마귀 슬피 울 제, 한곳을 점~ 점 내려가 마하에 내리서니, 영아공주, 난양공주, 진채봉, 계성월, 백능파, 심호연, 적제홍, 가춘홍, 모도 모도 모여 서서, 나를 보고 반가하니, 이내 작순이가 처절~ 철~철!(굿거리장단에 맞춰 한바탕 춤을 어울러 춘다.)

말뚝이 : 쉬~(장단과 춤을 멈춘다.)

날이 덥더부리 하니, 양반은 자식들이, 혼터에 강아지새끼 모인 듯이, 연당뭇에 줄남생이 모인 듯이, 물기 밑에 송사리새끼 모인 듯이, 모도 모도 모여 서서, 말뚝인지 개뚝인지, 과거장중에 들어서서, 제 의붓애비 부르듯이 말뚝아, 말뚝아 불러대니, 아니꼬와 못 들겠네.(말채로 '못들겠네'에 땅을 친다.)

종가도령 : (말뚝이가 땅을 치는 말채 소리와 동시에 놀라 털썩 주저앉는다.)

원양반 : 이노므 의붓애비라니!

젓양반들 : (다같이 서로를 가리키며) 니가 의붓애비다. 니가 의붓애비다.

말뚝이 : 소인은 상놈이라, 이놈 저놈 할지라도 소인의 근본을 들어보소. 우리 칠대 팔대 구대조부께옵서는 남병사, 북병사를 지내옵고, 사대 오대 육대조부께옵서는, 평안감사 마다하고 알성급제 장원에 도승지 참판을 지냈으니, 그 근본이 어떠하오!(칠대, 팔대 등 숫자를 헤아릴 때 손가락을 하나씩 꼽는다.)

원양반 : 이놈 말뚝아, 네 근본 제쳐 놓고, 내 집 근본 들어봐라, 기생이 여덟이요, 내자가 열둘이요, 능노군이 스물이요, 마호군이 서른이라, 그 근본이 어떠하노!

말뚝이 : 피, 양반 근본 좋다.

젓양반들 : (다 같이 서로를 가리키며)니 근본이다, 니 근본이다.

원양반 : 이놈 말 똑아, 과거 길이 바빠오니 과거 행장 차리어라.

말뚝이 : 예~ 마판에 들어서서, 서산나귀 몰아내어 가진 안장 찌울 적에, 청송사 고운 굴레 주먹상모 덩벽 달아, 앞도 걸쳐 잡아매고, 뒷도 걸쳐 잡아매고, 노생원님 끌어 냈소.

원양반 : 이놈 노생원이라니.

말뚝이: 아! 청노새란 말쌈이요.

원양반 : 내 잘못 들었네, 내 잘못 들은 죄로, 네 귀꾸멍에 이내 작순이로 쿡쿡쳐박아라.

말뚝이 : 청~노새, 청~노새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양반과 말뚝이가 모두 어울려 한바탕 춤을 추다가 덧배기 장단에 맞춰 비비가 등장하여 위협을 가하면 놀란 듯이 퇴장한다.)

15. 통영오광대

통영오광대_할미양반	통영오광대_할미	통영오광대_몽돌이
		

15. 통영오광대

: 영남지방의 오광대(五廣大)놀이 중의 하나로, 경상남도 통영시에 전해 오는 탈놀이이다.(1964.12.28 지정)

제4과장 <농창탈>

(중략)

:

작은어미 : 아이고 배야

할미양반 : 어디가 아파서 그러는가! 뒷집에 콩 누른밥을 묵고 콩배가 아프지?

작은어미 : 아닙니다. 영감님! 며칠 전부터 우연이 뒷이 묵고 싶더니 오늘은 아랫배가 아프고 이슬기가 있습니다.

할미양반 : 아이고 그래! 참 우리 둘이 만난 지가 우금 일년이 넘었구나! 순산기가 있나부다.

작은어미 : 영감님 오늘은 장에 가서 미역 삼뱅이 노랭이 송어를 많이 사오시오.

할미양반 : 그러온 몽돌이(끝돌이)를 불러라! 몽돌아

몽돌이 : 예 영감님 불러계십니까?

할미양반 : 오, 망태 이리 가지고 오너라.

몽돌이 : 예 영감님 망태가지고 왔습니다.

할미양반 : 이놈! 내가 해복 장보로 장에 갔다 올 테니 나 없는 사이에 집 단단히 지켜라. 다른 손님이 오거든 몽둥이를 가지고 때려 쫓아라. 만일 집을 잘못 지키면 네놈을 쫓아낼기다.

몽돌이 : 예 염려말고 다녀오시오.

할미양반 : 그리고 자네도 나 없는 사이에 남들과 꿈뻑꿈뻑 나쁜 장난 하지 말고 몸조심하고 잘 있거라.

작은어미 : 염려말고 다녀오시오.

할미양반 : 부탁하네.

작은어미 : 몽돌아

몽돌이 : 예.

작은어미 : 영감님 없는 사이에 우리 재미있게 한 번 놀아보자.

몽돌이 : 예 그럼시다.

작은어미 :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옆집에 정서방 모두 모시고 오너라.

몽돌이 : 예, 박생원 정생원 김생원 다 어서 오시오. 우리 영감님 없는 사임에 재미있게 노잡니다.

(창)(밀양아리랑)

몽돌이 : 우리집 영감님 오시면 큰일납니다. 제발 나가 주시오.

할미양반 : 이놈들! 이런 죽일 놈들이 있나!

몽돌이 : 아이고 영감마님 장에 갔다 오신다! 아이고 이일을 어찌할꼬! 어서 가소 어서 가소!(놀랑패들 아이고 아이고 하며 달아난다.)

작은어미 : 영감님 날루 봐서 참우시우.

몽돌이 : 아이구 영감마님 한 번만 용서해 주이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할미양반 : 뭐! 날루 봐서 참우라고 허허허 너 이놈! 보기도 싫다. 나가거라.

몽돌이 : (창)못 살겠네 못 살겠네 일년 열두달 삼백육십일 남의 집 고용살이를 못 하겠네.

할미양반 : 너 이놈! 소위를 생각하면 쫓아낼기로데 불쌍하여 살려 준다.

작은어미 : 영감님 남부끄럽습니다. 안을 들어갑시다.

할미양반 : 뭐! 남부끄러운 줄 아느냐! 허허 어리석은 것이 남자로구나.

(잡이) 곳거리

(할미등장)

:

(중략)

할미 : 나는 충청도 한산 예포골에 사옵는데 나는 열네 살에 시집 가고 영감은 열 두 살에 장가와서 살더니 우리집 영감님이 우연히 집 떠난 지도 우금 삼년이 되어도 소식이 돈절하여 우리 영감 찾아 팔도를 다니다가 오동지 설한풍에 미영도 짓고 품삯도 팔고 고생하다가 통영 오입쟁이 많이 논다는 소문 듣고 우리 영감 찾아왔오.

:

(중략)

할미양반 : 내가 이삼일전에 우리 고향 사람을 만나 소문을 들어니 우리 할머이 나를 찾아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디서 우리 할머이를 만날까! 할머아.

할미 : 어디서 우리 영감 음성소리가 들리네 영감아

할미양반 : 어디서 우리 할머이 음성소리가 들리는구나 할머아

할미 : 영감아.

할미양반 : 할머아 할머아

할미 : 아이고 아이고 영감아 무정하고 야속하유! 집 떠난 지 우금 삼년이 되어도 소식이 돈절하얏소(울면서 코푸는 소리 웅 쾌하며)애 요 개야

(창)

할미양반 : 우지 마소 내 할머아 만사가 모두 다 내 불찰이로구나, 우지 말고 고향가세.

작은어미 : (돌아보고 집으로 들어간다.)

몽돌이 : 영감마님

할미양반 : 왜 그래!

몽돌이 : 작은 마님이 순산기가 있습니다.

(중략)

:

몽돌이 : 작은 마님이 순산했습니다.

할미양반 : 그래! 그러면 뒷을 낳았느냐!

몽돌이 : 예, 고추가 데롱데롱 달린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할미양반 : 그래! 그럼 이리 좀 데리고 오너라! 날로 닳아서 얼굴이 두리뎡적하구나

(창)(중중모리)

동동 내 아들 어허 동동 내 아들 이리 보아도 내 아들 저리 보아도 내아들 동동동 내 아들.

할미 : 영감님 나도 한번 열려나 봅시다.

할미양반: 그리하게.

(창)

새벽바람에 연초롱 땀기 끝에는 진주씨 웃고름에다 미라를 주렁주렁이 달았네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땅에서 불군 솟았느냐! 어허동동내 아들.

작은어미 : 어린애 이리 좀 주소

할미 : 한번더 열려보고!

작은어미: 어린애 이리 주소!

할미: 동동 어허동동(어린애 우는 소리.작은어미가 떠밀어 할머미 넘어진다)

몽돌이 : 영감마님!

할미양반 : 오냐!

몽돌이 : 아 큰마님이 금시 탁 구부러지더니 그만 기절했습니다.

할미양반 : 뭐! 어째!

몽돌이: 영결종천 했습니다.

할미양반 : 죽어?! 아이고 이일을 어찌할고!

(창)

원통하다(뉘두리) 불쌍한 내 할머미 나를 따라 사노라고 고생 고생 하다가 수백 리 타향에서 객사 죽음이 웬 말이나! 몽돌아 애통한들 소용없고 통곡한들 소용 없다 큰댁 자식들한테 통보하여 초상 칠 채비나 차려라!

몽돌이 : 예

상여꾼 :상여 앞소리

어화님 어화님차 에나리님차(2회 반복) 명정공포 운아상은 요령 소리가 처량하네 어화님 어화님 에나리님차 에화님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고 설어마라
어화님 어화님 에나리님차 어화님 명년 삼월 돌아오면 그 꽃이 다시 피느니라 어화님 에나리님차 어화님 우리 인생 죽어지면 다시 오기 에로워라 어화님 어화
님 에나리님차어화님 북망산이 머다더니 저 건너 저 산이 북망산이라 어화님 어화님 에나리님차 에화님

할미양반 : 아이고 마누라.(울음을 운다)

16.진주오광대

진주오광대_양반	진주오광대_중	진주오광대_할미
		

진주오광대_소매1

진주오광대_소매2



16.진주오광대

:경상남도 진주시에 전승되어오던 탈놀이.(2003.06.12.지정)

다섯째 마당

할미 놀음 덧배기 장단에 엉덩이를 있는대로 흔들며 <할미>가 나타난다. 달비로 긴 비녀 찌르고, 웃고름에 큰 가락지 매고, 오른손에 긴 담뱃대 쥐고, 진흥단 속곳에 흰 치마 저고리를 입었으나 허리는 그대로 드러난 채 엉덩춤을 흔들며 추며 장단 맞춰 한바탕 배긴다. 이윽고 춤을 그치면, 담뱃대를 입에 물고 구경꾼 들께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마에 손을 얹고 영감(생원님)을 찾는데, 영감은 찾지 못하고 오줌 누는 흥내로 구경꾼을 웃기기도 하고, 몰래 앞에 퍼질고 앉아서 미영을 찾기도 하다가 갑자기 아들 <무시르미>를 부른다.

할미 : 매소롬아-, 야이 매소롬아-! 무시르미가 손님(천연두)을 잘 해서 고와진 얼굴에 의복도 말쑥하게 입고 방정 맞게 대답하며 쫓아나온다.

무시르미 : 예-

할미 : 니 저기 가서 분지 좀 가져 오너라. 오줌을 좀 노야겠다.

무시르미 : 예- (다시 방정맞게 쫓아가서 요강을 들고 와서 할미 앞에 놓는다. 할미가 관중들 앞에서 속것을 내리고 요강에 앉아 오줌을 누는데, 무시르미가 머리를 땅에 박고 밑을 들여다보며)

무시르미 : 옴마, 그 밑에 빨간 그기 뵈고?

할미 : 옛기, 이놈의 자식! 저리 썩 못 비끼나! (오줌을 누고 몸을 흔든 다음) 이 분지 저리 갖다 비워라. (무시르미는 요강을 들고 관중들에게로 다가가서 오줌을 관중들 쪽으로 뿌려버린다.) (할미가 일어나 다시 이마에 손을 얹고 구경꾼들을 둘러보며 ‘영가암-! 영감-!’ 하며 무대를 돌 때에 생원님이 말뚝이를 앞세우고 두 색씨와 함께 춤을 추며 나타나서 ‘할멈! 할멈!’ 하고 부르며 찾아 다닌다. 마침내 할미와 생원님이 서로 엉덩이를 부딪치며 만난다.)

생원님 : 아니고, 할맘!

할미 : 아이고, 영감! (서로 반가워 부둥켜 안고 어쩔 줄 모른다.)

할미 : (영감의 허리를 두 팔로 부둥켜 안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빙빙 돌다가 영감의 몰골을 보고는) 날 마다하고 가산팔아 나가더니, 개가죽 감투가 우짤 일고! 날 버리고 나갈 때에 호기 좋게 타고 나간 서산(西産) 나귀는 어데 두고, 노란 강생이가 우짤 일이고! (하면서 노기가 만면이다.) 생원님 : 할마암! 할맘!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요번에 하늘로 올라가서 영양공주 난양공주를 데리고 안 왔나! 상면(相面)이나 한 번 해봐라! (하면서 할멈을 데리고 춤추며 색씨들에게로 간다.) (할미가 담뱃대를 손에 쥐고 화가 잔뜩 나서 생원님을 힐끗힐끗 흘겨보며 따라가서, 이윽고 저쪽에 돌아서서 교태있게 가벼운 춤을 추고 있는 색씨들에게 다가가서는 주변을 한 바퀴 빙빙 돌더니, 갑자기 용모 싸움에서 질 수 없다는 생각이 났던지 돌아 앉아 얼굴 단장을 새로 하고는...)

할미 : (한 색씨의 뒤로 가서 등을 손가락으로 쿡 찌르며) 네 요년, 네이름이 뵈고?

영양공주 :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이며) 영양공주예요! (하면서 춤은 그치지 않는다.)

할미 : (다른 하나에게로 가서 또 그렇게) 네 이름은 뵈고?

난양공주 :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이며) 난양공주예요! (하며 춤을 그치지 않는다.)

할미 : (잠시 분을 참는 듯하더니 갑자기) 이년드을! 남의 영감을 빼앗아? 오늘 내랑 사생결단을 한 분 해보자! (덤벼들어 마구 때린다.)

색씨들 : (생원님 뒤로 달아나 숨으면서) 아이고, 영감! 사람 살려주세요! (화가 치민 생원님이 할미에게 달려들어 때리다가 발로 차서 넘어뜨리자, 할미가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다. 그제야 놀란 생원님이)

생원님 : 어이쿠, 이거 우리 할망구 죽어빠린 거 아이가? 무시름아!

무시르미 : 예- (다시 방정스러운 몸짓으로 달려온다.)

생원님 : 이거, 느 오매가 죽었다. 어서 가 의원(醫員)을 좀 불러 오이라.

무시르미 : 예-. (하면서 악사 쪽으로 가서) 이원! 이원! (하고 부르다가 악사 가운데로 가서 의원을 이끌고 나온다.) (흰 두루마기에 갓을 쓴 <의원>이 할미에게로 가서, 할미의 손목을 잡고 진맥을 하더니, 주머니에서 침을 꺼내 할미에게 놓는다. 그래도 할미는 살아나지 않는다.)

의원 : 죽은 사람에게 침을 놓으니 무슨 소용이 있나! (하면서 침을 챙겨 사라진다.)

생원님 : 아이구 우짜꼬? 큰 일 났네! 아이고, 무시름아-

무시르미 : 예- (다시 방정스러운 몸짓으로 달려온다.)

생원님 : 봉사를 불러다 경(經)을 읽히야겠다! 가서 봉사 좀 불러 오이라.

무시르미 : 예- (하고는 악사 쪽으로 가서) 봉사! 봉사! (하고 부른다.)

봉사 : (목소리만으로) 와 장소? 무시르미 : 지금 우리 오매가 다 죽어갑니다. 어서 와서 경을 좀 읽어 주이소. (머리에 흰 수건을 동여 매고, 그 위에 탕건없는 맨 갓을 데롱데롱 매달아 쓰고, 왼손에 북을 들고, 바른손에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는 <봉사>를 악사 뒤에서 무시르미가 끌고 나온다. 마음이 급해서 끌어당기는 무시르미와 앞이 보이지 않아 허둥거리는 봉사가 넘어져 할미 앞에 간신히 나와 앉아서 경을 읽는다.)

봉사경 : “북두규진 중천대신 성조조왕님과 제석상신왕님 전에 지성 발원하나이다. 강선달맥 전주이씨 부인이 우연 득병하여 생사미판이오니 어여빠 여기시어 낮게 하여 주옵소서. 경상남도 진주시 강선달맥 이씨부인, 신운이 불길하여 우연 득병하오시니, 삼위 태백(三危太白) 오방 신장 님네, 널리 굵어 살피시사, 씻은 듯이 낮게 하여 주옵소서.” (독경을 하여도 효험이 없자, 봉사는 일어나서 나간다.)

봉사 : 아이구, 안 되겠소. 나는 그만 갑니다. (왼손에 북, 오른손에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며 나간다.) 생원님이 할미를 흔들어 보아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넋을 빼앗긴 채 있으니 웅생원이 다가와서

웅생원 : 옛말에 선치방 후치약(先治方後治療)이라 했으니,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한번 하여 보세.

말뚝이 : 제가 무당을 청해 오겠습니다.(하고 나갈 때에 생원님과 할미만 남기고 모든 사람들이 퇴장한다.) (말뚝이가 북과 징, 팽과리 따위 무구(巫具)를 할미 곁으로 가져오면, <무당>이 무복(巫服)을 갖추어 입고 따라와서 오구굿을 벌인다. 악사들이 북과 징과 팽과리로 박수 노릇을 하고, 무시르미도 대잡이로 나왔다.)

무당 : 임금공심 절하주요 남산은 본이로다. 조선은 국이로다. 팔만은 사도세계 나래도랑 열두나래. 국도 열두국이로다. 쉬…… 제국이야 진주는 목사도이. 서천국 사바세계 해동조선 경상우도 관은 진주시 관이더니. 어열신 금일망제 사자없는 죽음이야. 급살맞은 죽음이야. 원통하고 절통한 죽음이야. 경을 읽는다고 살 것나 침을 맞는다고 살 것나. 원통한 이 망자를 맺힌 고를 풀어보자. 아이고 야속한 이 영감아. 요법사 이 망자를 보아하니 사방살 오방살을 풀어야 살아나는데…… 우리 한번 살귀 살신을 풀어봅시다…… 어라 만수 어라 대신이야, 액을 소멸하고 수를 막아 소멸하고, 어느 날이 액날이고 어느날이 수달이고, 사람의 몸은 하나인데 살은 육십네살이라, 머리 위에 종근살, 머리 밑에 두평살, 얼굴에 기상살, 손에 육갑살, 발에 나양살, 살귀 살신을 막아 맺힌 고를 풀어보고 맺힌 한을 풀어가자…… 어허 세상 나서 이리 기막힌 데가 있다. 영감아 네 화상이나 한번 쳐다보자. 날로 이리 괘시하고 이리 가슴에 한이 맺히거로 만들었나…… (오구굿이 한창 고조되었을 때에 할미가 사지를 움직이면서 소생하자 생원님이 좋아라고 열시구 굿판에 나와 무당과 어우러져 춤을 추면서)

생원님 : 동네 사람들아-, 죽었던 우리 할망구가 살아났네-, 열씨구 절씨구, 이럴 수도 다 있는가! (웅생원·차생원과 무시르미도 즐거운 춤바탕에 어우러지고, 장단은 무정적공이로 바뀌면서 퇴장하였던 사람들이 팔선녀를 앞세워 모두 나와서는 마지막 춤판이 흥겨웁게 벌어진다.)

17.가산오광대

가산오광대_서방백제장군	가산오광대_북방흑제장군	가산오광대_남방적제장군
		
		

가산오광대_중앙황제장군



가산오광대_동방청제장군



17.가산오광대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에서 정월 대보름에 행하던 탈놀이.(1980.11.17. 지정)

제1과장 -오방신장무-

탈판 한쪽에 악사가 자리 잡고, 적당한 곳에 오방신장(五方神將)들이 황제장군(黃帝將軍)을 선두로 반주음악에 맞춰 오방신장춤을 추며 오방신장들이 탈판 중앙 적당한 곳에 도착하면, 황제장군 이 멈춰 서서 "에라 쉬-이"하면 음악과 춤이 일제히 멈춘다.

황제장군: (손에 든 모삼으로 동쪽을 가리키며) 동방청제장군(東方靑帝將軍)-. (하고 부른다.)

청제장군: 예-.

황제장군: 동쪽에 서고. (청제장군은 동쪽에 가서 선다.) 서방백제장군(西方白帝將軍).

백제장군: 예-.

황제장군: 서쪽에 서고. (선 다음) 북방흑제장군(北方黑帝將軍)-.

흑제장군: 예-.

황제장군: 북쪽에 서고. 남방적제장군(南方赤帝將軍)-.

적제장군: 예-.

황제장군: 남쪽에 서고.

(마지막 적제장군이 자리에 서면 황제장군은 동서남북의 한 중앙에 선다.) 서울 선비들이 영남(嶺南)이 놀기 좋다 해서 경남(慶南) 사천군(泗川郡) 축동면(杻洞面) 가산리(駕山里)라 군데 내려와 보니, 경치(景致) 좋고 공기도 좋고 가산(駕山) 한량들이 많아, 이 좋은 장단에 오방신장(五方神將)들은 각기 마음대로 춤이나 한 번 찰찰 춰 보세. (장단에 맞춰 한참 춘다.)

18. 김해오광대

김해(가락)오광대_작은이	김해(가락)오광대_영감	김해(가락)오광대_큰어미
		

18.김해(가락)오광대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면에서 음력 정월대보름날 밤에 연희되던 탈놀이.(2015.03.05.지정)

--